



광주·전남지역의 대표 사립미술관인 의재미술관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국립박물관 등 무료 관람 '역풍'

오는 5월부터 국민의 문화향수권 확대를 위해 국립박물관·미술관의 관람료를 없애겠다는 새 정부의 방침에 대해 광주·전남지역 사립 미술관·박물관들이 반발하고 있다.

관람객들이 국공립 전시장소로만 몰려 사립 전시장의 입장료 수입이 줄어 운영 자체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사)한국박물관협회 전남도협의회(회장 유수택)는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수입 감소에 따른 정부지원 방안만 있을 뿐 사립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지원계획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사립 전시장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 '문화 향수권 확대' 추진에

주장했다.

현재 광주 지역은 의재 미술관, 무등 현대미술관,

사립 미술관들 "생존권 위협" 반발

무등현대미술관 등 3곳의 사립미술관이 있고 전남은 영암 아천 미술관, 담양 명지미술관, 고흥 남포미술관 등 7곳의 미술관과 보성 티베트박물관, 대흥사·송광사 등의 사찰에 소규모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다.

전남지역 미술관·박물관은 연간 2천만원(도·군비 50%씩)의 운영비 지원을 받지만 광주지역은 이마저도 혜택을 받지 못해 운영비의 대부분을 설립자나 관장의 사재와 입장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남포미술관 관형수 관장은 "기획전을 준비하면 2천여만원이 드는 데 입장료 수입은 고작 100여만원 안팎이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운영이 힘든데 국공립 전시장이 무료 개방되면, 대부분 사립 전시장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무료 관람에 따른 전시의 질 저하도 지적되고 있다. 무등현대미술관 정승규 관장은 "사립미술관의 관람료는 '돈을 내고 미술품을 찾아 감상한다'는 교육적인 측면 뿐 아니라 미술품 보호에도 꼭 필요한 제도다"면서 "이번 새 정부의 방침은 궁극적으로 사립미술관이 대형 전시를 기획하지 못하게 하는 쪽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광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문학 변천사·광주 연극사·근현대 미술총서 두번째권...

올 지역 문화계 키워드는 '뿌리찾기'

지역 문화계를 탄탄히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사와 작품 발표 무대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를 갈무리하고 정리하는 작업 또한 필요하다. 최근 지역 문화계가 뿌리 찾기 작업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광주민예총(회장 허달용)은 '문화운동 30주년 기념사업회'를 조직하고 지역 민중문화예술을 총정리하는 대장정에 나선다.

1980년 광주민중문화운동협의회에서 출발, 지역 문화예술운동의 맥을 잇고 있는 광주 민예총은 5·18 30주기를 지역 문화운동 30주년을 2010년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할 계획이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문화 운동의 역사를 정리하는 책자 발간 사업이다.

30년의 역사를 담아내는 작업이 만만치 않아 올해부터 3년에 걸쳐 작업을 진행한다. 자료가 워낙 방대하고 체계적으로 보관되어 있지 않아 우선 올해는 각지에 흩어진 자료 수집에 시간을 쏟을 계획이다. 설계그림 등 미술작품의 경우 훼손이 심한 것들도 많이 복원작업 등도 함께 진행하며 공연, 전시 등 사업도 계획들도 조금씩 준비해 나간다는 생각이다.

신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한국 연극의 역사를 더듬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연극계도 광주·전남의 연극사(史)를 복원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신극 탄생 100주년을 1908년 창설된 원각사에서 한국 최초의 신극 작품인 '은세계'(이인직작)가 공연된 날을 기점으로 한다.

광주연극협회(회장 박규상)는 '광주 연극사'를 발간기로 하고 3월초 열리는 협회 이사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미술협회(회장 정광주)와 전남미술협회(회장 김용선)의 지역 미술사를 정리하는 작업도 활발하다.

미술협회는 지난해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각각 4천만원을 지원받아 지역 미술계의 오랜 숙



지역 문화계의 뿌리를 찾는 작업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민예총은 마당극 등 지역 문화운동 30주년을 갈무리하는 대장정에 들어갔다. 놀이패 신명의 마당극 공연 모습.

광주민예총, 2010년까지 자료수집·복원 등 민중예술 정리 박차

연극·미술·문학인협회도 공연·전시 병행, 다양한 사업 전개

원이었던 '광주·전남 근현대 미술총서' 첫번째 권을 발간, 구한말부터 1945년까지의 지역 미술의 역사를 갈무리했다.

올해는 역사 시·도의 예산을 받아 해방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지역 미술의 흐름을 살펴보는 두번째 권 제작을 위해 7월께 추진위원회와 편집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며 이후 마지막 '1980년~현재'까지를 다룬 세번째권까지 완간, 역사 정리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화계의 움직임도 눈에 띈다. (사)한국지역문학인협회(이사장 황하택·이하 문학인협회)는 2년 계획으로 '광주문학변천사' 집필 작업을 준비 중이다. 장기 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주문학총

서'의 첫번째 작업이다. 광주시로부터 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진행되는 '광주문학변천사'는 한시부터 시조, 가사, 수필, 소설, 시, 아동문학, 희곡, 평론, 동인지 등 문학의 각분야를 망라, 광주문학의 역사를 집대성한 1천500여장 정도의 분량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1회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 참가한 23살의 미국 피아니스트 반 클라이번은 소련의 경쟁자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당대 러시아 최고의 작곡가 쇼스타코비치는 그의 신들린 듯한 연주에 매료됐다. 이 사건은 미국문화

를 '퇴폐적 부르주아의 산물'로 경시해왔던 당시 소련인들에게 미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작업을 주도하는 문학인 협회는 전남문학 100년 사업추진위원회를 꾸려 1997년 '전남 문학변천사'를 펴낸 바 있으며 전남문화 대표작 선집(5권), 한국한시선집 등도 발간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음악은 기적을 낳고

지난해 말 '메이드 인 할리우드'로는 저예산(제작비 280억원)임에도 불구하고 대박을 낸 영화가 있다. 미국판 '엄마 찾아 삼년리'인 '어거스트 러쉬'다. '나는 전설이다' '내셔널 트레져' 등 블록버스터들과의 대결에서 관객 200여만명을 동원하는 돌풍을 일으켰다.

영화의 즐거움은 단순하다 못해 진부하다. 태어나마자 외할아버지의 거짓말로 고아원에 보내진 주인공 에반(11)은 천재 음악소년이다. 보라소리, 풀잎이 스키치는 소리, 심지어 도시의 소음조차 그에게 아름다운 음악으로 변주된다. 처음 만져보는 기타도 그의 손끝에선 어찌를 절로 들썩거리게 하는 경쾌한 선율을 토해낸다. 밴드 멤버이자 기타리스트인 아빠와 유명 첼리스트 엄마의 피를 물려 받은 덕이다. 음악이 언젠가 아빠와 엄마에게 전해져 자신을 찾게 될 거라고 믿는 소년은 부모와의 재회를 꿈꾸며 고아원칙의 입양 제의를 거절한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은 부모를 찾기 위해 고아원을 탈출, 뉴욕으로 향한다. 이곳에서 소년은 '어거스트 러쉬'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길거리에서 음악을 연주하다 홀리우드 음대에 입학하게 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에반은 마침내 부모의 품에 안기는 기적을 이룬다.

그저 그런, 신파조의 영화가 200만명의 심금을 울릴 수 있었던 데에는 음악의 힘이 컸다. 영화는 고아원에서부터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이르기까지 부모를 찾아 떠나는 소년의 고단한 여정을 클래식과 록이 결합된 선율로 아름답게 그려냈다. 관객들은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음악의 놀라운 마법에 푹 빠졌다.

음악이 이뤄낸 기적은 영화속 이야기만은 아니다. 미·소 냉전이 한창이던 1958년, 모스크바는 한 미국청년의 피아노 연주에 전율했다. 제1회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 참가한 23살의 미국 피아니스트 반 클라이번은 소련의 경쟁자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당대 러시아 최고의 작곡가 쇼스타코비치는 그의 신들린 듯한 연주에 매료됐다. 이 사건은 미국문화

를 '퇴폐적 부르주아의 산물'로 경시해왔던 당시 소련인들에게 미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다.

지난달 26일 동광양 대극장에서 열린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연은 '반 클라이번의 신드롬'을 떠올리게 한다. 클라이번의 연주가 푹푹 얼어붙은 러시아인들의 마음을 녹였던 것 처럼 뉴욕 필의 '파리의 미국인' '신세계 교향곡' 연주는 평양시민들의 가슴에 깊은 감동을 남겼다.

"이번 공연이 당장 핵문제와 북·미 관계개선을 이끄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며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전해줄 것"이라는 뉴욕필의 한국계 바이올리니스트 미셸 김의 확신은 음악이 지난 '보이지 않는 힘'을 함축한 말이다. 이처럼 음악은 언어와 국경, 이데올로기의 벽을 뛰어넘는 마법을 지닌다. 동토(凍土)를 적신 뉴욕필의 선율이 어떤 기적으로 이어질지 기다려진다.

(문화생활부장·jhpark@kwangju.co.kr)

올 '임방울국악제' 9월 23일 열린다

제 16회 임방울국악제가 오는 9월 23~26일까지 광주주예회관 등지에서 열린다.

(사)임방울국악진흥회(이사장 김포천)는 지난날 26일 2008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개최 날짜를 이같이 확정했다.

국악 임방울 선생을 기리는 임방울국악제는 전국 국악경연대회 중 가장 권위 있는 행사로 대통령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천 500만원, 순금 100돈으로 만든 트로피가 증정된다.

총회에서는 또 2007 임방울국악제 결산보고와 2008년도 예산 4억 9천596만2천 원, 추인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창작발레의 색다른 경험

아시안발레단, 화요예술무대 첫 선

'백조의 호수' '지젤' 등 클래식 발레에 익숙해진 관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전해줄 창작발레가 무대에 오른다.

아시안발레단(대표 김유미)은 4일 오후 7시30분 광주주예회관 소극장에서 '흔적을 남기다-Leave Trace'(사진)는 지난 2006년 열린 제15회 전국무용제에서 금상과 안무상, 연기상, 무대미술상 등 4개 부문을 휩쓴 수작이다.

광주주예회관이 주최하는 화요예술무대 초청으로 무대에 오르는 이번 작품은 우리 사회의 큰 딜레마 중 하나인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죽음을 앞둔 한 노인의 모습에서 시작하는 '흔적을 남기다'는 과거, 현재, 미래 3장의 구성을 통해 새 생명의 탄생이 우리나라 저출산에 새 희망의 빛을 메시지를 담고 있다. 김유미씨가 안무를 맡았으며 공병태·조재욱·박선희·조나경·정정은·박정교·노여진씨 등이 출연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또 요한 스트라우스의 음악을 배경으로 한 '봄의 기적', 뒤마의 소설에서 모티프를 얻은 '동백꽃의 여인', '또 다른 카르멘' 등의 작품이 함께 선보인다. 문의 062-510-925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 large advertisement for cinema listings. It features a header with 'Happy Time 영화안내' and several columns for different theaters: 메가박스, 엔터시네마, 콜롬버스시네마, 씨너스전대, 무등극장, and 제일시네마. Each column lists movie titles, showtimes, and prices. Contact information and website addresses are also provided for each theater.